

#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 / 김병희 옮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411-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전화 (0344) 914-2732, 팩스 (0344) 917-4520

---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isan4-dong, Ilisan-gu, Koyang-shi, Kyunggi-do,  
411-314, Korea.

# Guide to Christian Growth

Twelve Studies for Keen, Young Christians

by  
WILLIAM MacDONALD  
and  
CYRIL H. BROOKS

EMMAUS BIBLE SCHOOL  
BOX 980  
OAK PARK · ILLINOIS 60301



---

## 차 례

---

제 1 과 / 타락과 회복 .....	7
제 2 과 / 예 배 .....	13
제 3 과 / 성경암송.....	20
제 4 과 / 선 행 .....	26
제 5 과 / 매일 경건의 시간 .....	33
제 6 과 / 성령님의 열매.....	39
제 7 과 / 기독교 서적들.....	45
제 8 과 / 선 교 .....	51
제 9 과 / 금전에 대한 침지기 직분.....	57
제 10 과 / 사랑과 구애(求愛).....	64
제 11 과 / 결혼과 가정 .....	70
제 12 과 / 전임 사역으로의 부르심 .....	76
부 록 / 정육의 문제 .....	83



## 제 1 과

# 타락과 회복

**영**적으로 어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타락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벧후 1:3) 만일 우리가 주님과 교제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의 원인과 그 치료책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자신의 경계와 교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타락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은 대개 급작스런 사건이라기보다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리 해롭지 않은 쾌락이 우리의 성경공부와 기도를 밀어낼 수가 있으며, 친구를 잘못 사귀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여 영적인 일을 떠나게 할 수가 있으며, 자백하지 않은 죄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유혹에 점점 굴복하게 되며, 결국은 드러내어 놓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타락의 과정을 삼손(삿 14

장~16장)과 나오미(룻 1:1~5)와 베드로(눅 22:54~62)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그들은 성경이나 기도에 대한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처럼 식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고전 3:1~2).

② 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피합니다. 설사 그가 교회의 집회에 참석한다 해도 그것은 그의 충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상태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답후 4:10).

③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혹은 전혀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약 4:13).

④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결심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예전처럼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히 5:12).

⑤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 상태를 숨기려고 애를 써도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냉랭하고 경건치 못한 길에 있으면서도 계속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결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시 51 : 12).

[6]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마음이 됩니다.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자기 친구(또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텍수염이 난 노인이 어느 더운 오후에 느릅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때 어떤 장난기 있는 마을 청년들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치즈를 잠든 노인의 텍수염에 문질러 놓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그 때부터 모든 사람의 몸에서 치즈 냄새가 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마 7 : 3).

[7] 그들은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환경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다른 그리스도인들 보다 더 영적이라고 주장합니다(말 2 : 17).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 무엇보다도, 타락한 자는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일만 빼놓고는 모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과정을 통해 자기 주님이나 자기 교회,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눈물과 후회와 슬픔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예로서 사도행전 5 : 1~11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②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이 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생의 파멸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단 하나의 죄가 사람을 파멸시켜 영원토록 주님께 공적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고전 5 : 1~13).

③ 타락은 일생 동안 남는 육체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한 천국에서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생에서는 자기 죄에 대한 결과들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서 사무엘하 12 : 14과 그 이하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질병과 질고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줄지도 모릅니다(갈 6 : 7).

④ 그리스도인이 타락과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사람을 하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고전 11 : 30, 요일 5 : 16).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우리는 방황의 세월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다음과 같이 애처롭게 고백하는 나오미의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희락)라 칭하지 말고 마라(괴로움)라 칭하

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룻 1 : 20~21).

나오미는 자신의 타락의 결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역시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역시 풍족하게 나갔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빈 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영원토록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곧, 아버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눅 15 : 20). 즐거운 가족 정신은 깨어진 상태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 1 자 백

♥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 : 9).

♥ **자백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자백의 말을 아무리 되풀이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시편 51편에 나온 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지점에 이룬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 **자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자백하는 것이 가치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비참하고 악한 자신을 드러내 어감에 따라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는 가지고 놀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잠 28 : 13).

## ② 보 상

타락했던 사람이 회복될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것을 할 수 있는 한 보상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한 물건이 있으면 이자(利子)와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뼈 아픈 수치와 경멸을 당하는 것은 장차 죄에 대하여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③ 회 복(시 23 : 3).

온전한 자백을 한 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뢰했을 때 구원 받은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버렸으면 자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때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을 것이며, 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이며, 그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시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따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제 2 과

---

# 예 배

---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 원한다면 이 중요한 영적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곧, 그분의 본체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곧, 그분의 크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온 마음이 넘쳐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신체적 자세이듯이, 예배도 찬미를 드리는 사람의 영혼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겐 변함없는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예배가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사 43:7). “인간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인간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②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찬미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1:12).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늘과 땅을 예비하는 자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③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요 4:23).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는 우리가 정관(靜觀)하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고후 3:18).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예배에 관한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주의깊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다음의 네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지니고 있습니다.

① 동방박사(the wise men)들의 예배(마 2:1~11).

먼 나라에서 여행해 온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귀한 예물을 가져왔는데 이 때 가져온 황금은 그분의 신성(神性)을 가

리키고, 유향은 향기로운 그분의 죄 없는 삶을 가리키며, 몰약은 그분의 쓰디쓴 고난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이 사실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습니다. “동방 박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wise men)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② 어떤 여자가 향유가 든 옥합으로 드린 예배(마 26 : 6~13, 막 14 : 3~9).

그녀는 아주 귀한 것을 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로 여기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예배의 행위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③ 마리아의 예배(눅 14 : 3~9).

이 말씀에서 마리아의 예배는 섬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식사 준비에 바빠있는 동안 마리아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배와 섬김은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42절에 나온 주님의 말씀은 예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  
휴식을 취할 여유도 없이  
바빠 수고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네.  
종종 그분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를  
완전한 섬김으로 여기시네.”

#### ④ 깨끗케 함을 받은 문둥병자의 예배(눅 17 : 12~19).

열 명의 문둥병자가 깨끗케 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슬픈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고침을 받아 기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문제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으며, 이 두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두 필수적인 것입니다.

#### ① 개인적으로

각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지니고 있는 모든 의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 : 6).

시편은 예배에 관한 놀라운 본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들 중에서 일부를 암송하여 우리 자신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부르거나 인용할 수



있는 예배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찬송 하나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 ② 단체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공적인 집회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배와 관련된 교회의 집회의 한 형태가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성만찬”, 또는 “떡을 땀”으로도 알려진,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다음과 같이 일을 하도록 팔리시던 날 밤에 이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 **그분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 : 19).

♥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 주도록 하기 위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여 주는 것이라”(우리 말 성경에는 “전하는 것이라”로 나와 있음 — 역자주. 고전 11 : 26).

♥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오실 때까지”(고전 11 : 26).

♥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고전 10 : 16~17). 한 떡과 한 잔은 우리에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제, 곧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의 지체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기념 잔치(만찬예배)가 얼마나 자주 열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도바울은 그저 다음과 같이 말할 뿐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막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지만 성경에는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매주일 첫째 날(일요일)에 함께 모여 이 엄숙한 기념 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행 20 : 7). 구주의 고난과 죽음을 자주자주 기념할수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예배와 흠모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두 원칙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①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요 4 : 23~24).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계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복장이나 정교하게 다듬은 의식, 또는 다른 어떤 물질적인 보조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이 땅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

가 없습니다(요 4 : 21).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찬미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히브리서 10 : 19~22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제 3 과

# 성경 암송

**모**든 사람은 성경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길게 인용하는 것을 듣고는 동경하는 마음으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던져야 할 중대한 질문은 “내가 과연 성경을 암송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하는가?”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강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❶ 그것은 시간과 영원을 위해 거룩한 투자이기 때문입니

다.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얻는 성경 지식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많은 학식들은 천국에서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벧전 1 : 25).

②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 : 11).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마 4 : 4, 7, 10). 우리가 성령님의 검인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원수는 언제나 도망갑니다.

③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 : 105). 등과 빛은 다음의 발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기억할 때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신 6 : 6).

④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그 값을 측량할 수 없을만큼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들에게 구주를 가르쳐 주는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히 4 : 12). 여러분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적절한 말씀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까?

⑤ 그것은 놀라운 위로(안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롬 15 : 4).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암송해 놓았다면 그 말씀들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으로 암송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명된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암송하기 원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시 37 : 4).

성경 암송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로 부딪치는 문제들 중의 하나는 “무슨 말씀을 암송할 것인가?”입니다. 다음의 제안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① 성경 암송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에 관한 일련의, 기초적인 구절들이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뽑아놓은 것, 또는 어떤 특별한 성경주제들을 다루어 놓은 것의 묶음 등등을 선택하여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익히십시오.

② 그 다음에는 장(章)을 암송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송하기를 좋아하는 장들입니다. 시편 23편, 이사야 53장, 요한복음 1장과 17장,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장과 11장 등등.

③ 그 다음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예를 들면, 마태복음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 등등)을 완전히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책의 메시지를 참으로 이해하는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되돌려 줍니다.

그러나 이제, 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느냐?”, “성경을 암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나?”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쉬운 방법이나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중(市中)에는 훌륭한 암기 방법들과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성경 암송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 암송에 임한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무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조그만 카드 한 벌을 구입하는 일입니다(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와 같은 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양면에 성경 말씀과 장절(章節)을 기록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이미 인쇄된 카드도 시중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카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자신이 정서하면 그 정서하는 자체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일에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우리는 듣는 것 중에서 10%를 기억하고, 보는 것 중에서 50%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70%를 기억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 중에서 90%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드를 꺼내어 그것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본문에 표현된 단어들을 주목하여 처음부터 정확하게 암송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장절(章節)도 함께 읽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소리를 크게 내어 읽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눈이라는 문과 귀라는 문을 통해 멧세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 할수록 카드를 보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카드를 보지 않고서도 성경 말씀과 장절을 암송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계속 복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미 암송한 말씀을 반드시 복습하십시오. 본문 자체를 보고 장절이 무엇인지를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장절을 보고 본문을 암송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암송을 할 때에는 친구들보고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른다고 해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암송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구절을 시도했다가 포기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구절씩 정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루에 한 구절씩 새로 암송하고 이미 암송한 것들을 다시 복습한다면 여러분은 일 년에 365구절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며, 더 이상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 즐겁고 유익한 암송습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암송한 말씀을 정확하게 복습하려면 이것조차 너무 많다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 주일에 세 구절씩 암송하고 날마다 적어도 20구절씩 복습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양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확하게 암



송하는 일을 동한히 해서는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다루어야 할 문제는 “언제 암송할 것인가?”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는 시간과 연관지어 암송 시간을 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날 아침에 배우고 암송한 구절을 그 날 하루를 보내면서 계속 되씹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콤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가 시간 끝, 기차나 버스, 또는 전차를 타고 가는 동안이나 혹은,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혹은 휴식 시간, 점심 시간 등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가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영원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한 벌의 암송 카드를 몸에 지니고 일터로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성경 암송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사람이 암송용으로 선택된 말씀을 정복하려고 서로 애쓸 때에 건전한 경쟁심이 각 사람에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서로 토론하는 것도 성경 암송을 종종 자극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소중히 담아 둔다면 여러분은 이생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오늘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제 4 과

---

# 선 행

---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는, 선행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선행(선행)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구원 못지 않게 강조해야 합니다(엡 2:8~10).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자주지주 권면합니다(마 5:16, 딤후 3:17, 딤후 3:17, 딤후 2:7, 14, 3:8, 14, 히 10:24, 벵전 2:12).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것은 구주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행 10:38).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마 10:25).

지금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경향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제일 나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늘 울리는 기독교의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를 힘쓰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주며, 위로

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수없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와 증거를 할 수 있는 이 황금같은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 1 환자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문, 과일, 유익한 읽을거리, 성경을 읽어주는 일, 기도 — 이와 같은 것들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며, 성도들에게는 격려를 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 2 노인들

노인들은 특히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베푸는 친절에 깊이 감사합니다. 한 번의 자동차 드라이브, 식사 초대, 특별한 경우에 보내는 카드 —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 3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 지식만 가지고서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좋은 중고품 옷이나 적은 금액의 돈으로 그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얻기에 족합니다. 다정한 그리스도인 친

구들에 의해 보냄을 받은,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여름성경학교에서 많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진짜로 곤궁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와 그저 직업적인 거지나 기생층에 불과한 사람들을 잘 구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동정이 신중한 분별과 더불어 베풀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④ 부랑자들

죄악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어느 지역사회에나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런 성향은 그들을 피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성향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덕망높은 그리스도의 종은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방랑자들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일부러 누더기옷을 걸치고 큰 도시의 슬럼가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⑤ 재난을 당한 사람들

거의 모든 지역사회에는 어려움과 재난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포착하여 화재나 강도, 사고, 사별(死別) 등으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 ⑥ 자기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도 우리는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해야 할 일이 항상 있

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책임을 소홀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 밖에서는 성도가 되지만 가정 안에서는 불신자가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간증입니다(딤후 5:8).

이상에서 든 예들은 우리가 행해야 할 다른 많은 선행 중에서 몇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더 많은 선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을 날마다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② 우리는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어떤 고용주는 구직자들과 면담을 하기 전에 짓꾸겨진 종이 한 장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6명이 그 위를 그냥 지나쳤지만 일곱 번째 사람은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취직을 하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③ 우리가 선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 2:5). 그리고 야고보서 4:17의 엄숙한 경고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④ 우리는 선행을 하되 할 수 있는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마 6 : 2~4).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⑤ 우리는 우리에게 되값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눅 14 : 12~14). 하나님의 손은 더 크며, 그분의 보상은 더 많습니다.

⑥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롬 12 : 20).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친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그는 참으로 구주를 따라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사병은 그리스도를 공적(公的)으로 증거하는 일 때문에 잔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사관 한 명이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사병에게 진흙 투성이의 군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병은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하사관은 자기 군화가 깨끗이 닦여서 자기 침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고 그는 바로 그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⑦ 우리는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전 9 : 10).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손 안에 있는

바늘과 실, 또는 만년필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무언가 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 9 : 36, 39).

[8]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골 3 : 17).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기회들을 사용하여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 번은 값을 심하게 깎기를 좋아하는 어떤 고물상이 팔 물건을 가지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값을 흥정하고 난 그리스도인은 그 고물상에게 몇 달러를 더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저는 이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리둥절해진 고물상은 그것을 받아들고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은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보상 자체도 자기가 행한 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높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뉴욕에서 500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느 위풍당당한 저택으로 걸어올라가 벨을 누르고 그 지갑을 고마와하는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10달러도, 100달러도, 500달러도 아닌, 자그마치 1,000달러를 보상받은 소년의 놀람과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

읍니까? 그 소년은 자기가 내린 결단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행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때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제 5 과

# 매일 경건의 시간

**주**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해소하라고 제안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활은 떡, 고기, 채소 같은 육신의 음식만 먹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음식,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고 양심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먹는 일에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시간을 흔히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때는 대개 매일 아침 얼마의 시간인데 이것은 몹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 저의 구주를 만나러 거기에 가면 그분은 거기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거기는 밀회 장소이며,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그 밀회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아침에 그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나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려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하며 그 장소로 간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거기에 계신다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 Wilson Cash).

둘째로,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의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이 당신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은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시간 중에서 일정한 분량을 이 목적에 할애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불가능합니다”(Cccil).

셋째로, 오직 이것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저는 이 진리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을 14년이 넘도록 잃지 않았읍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날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일은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첫째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은 제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기쁜 상태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제 속사람이 영양을 풍성히 공급받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조지 뮐러, George Muller).

매일의 경건의 시간은 단순한 성경공부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공부에서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단어와 장(章)과 책을 분석하려고 애쓰지만, 매일의 경건의 시간에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의 방법에 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① 기도와 더불어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그 날 하루 동안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으려고 애를 쓰며 조용히 앉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십시오(시 5 : 3, 141 : 2).

② 성경에서 짧은 단락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닥치는 대로 아무 데나 선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③ 그것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조지 뮐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몰입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제 마

음이 위로와 격려와 경고와 책망과 교훈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제 마음이 주님과 그의 경험적인(실제적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시 19 : 14).

④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그것을 철저히 소화하십시오. “저에게 대단히 많은 유익을 주는 방법은 조용히 앉아 제 자신의 구석구석을 성령님께 열어 놓고,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분에게 말씀드리며, 저의 시간과 저의 재능, 저의 뜻 등 저의 모든 삶을 매일매일 그분에게 새로이 봉헌하는 것입니다.”(W. Wilson Cash). “이렇게 한 결과 저는 거의 변함없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몇 분이 지나면 저의 영혼은 자백이나 감사, 중보기도, 간구로 인도되고, 결국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묵상은 거의 즉시, 얼마간 기도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얼마간 자백과 중보기도와 간구, 또는 감사를 드리다가 저는 또 다음의 단어나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단어나 구절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꿉니다. 하지만 저의 영혼의 양식을 계속 제 앞에 놓아두는 것이 저의 묵상의 목적입니다”(조지 윌러).

⑤ 여러분의 생각들을 공책에 적어 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귀한 교훈들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⑥ 여러분의 묵상을 그 날 당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

십시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할 뿐만 아니라(말 3 : 16) 그 귀한 교훈들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시간을 날마다 따로 구별하여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방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① 몹시 바쁜 일상생활

생활의 많은 업무들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자칫하면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눅 21 : 34 참조).

### ② 훈련의 부족

우리는 무겁고 뻣적지근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납니다. 좀 더 자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 : 41).

### ③ 마음의 방황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마음 속에서 이리저리 맴을 돌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일 이와 같은 방해들을 극복하고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더욱 유용한 그릇으로 준비될 것이며, 더욱 기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고 여러분 자신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을 모를지라도(출 34 : 29),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행 4 : 13).

## 제 6 과

# 성령님의 열매

**헨**리 드러몬드(Henry Drummond)는 한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이 일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모든 야망은 한낱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고, 이것보다 못한 모든 성공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의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를 재현(再現)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믿는 자들로부터 그들의 지배권을 온전히 넘겨 받으시면 “성령의 열매”로 알려진 어떤 덕성(德性)들을 계발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양분을 받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요 15 : 5)

### ㉠ 사 랑

사랑을 가장 잘 정의한 말씀들 중의 하나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4~8절에 나오

는 “사랑”이란 단어 대신 “그리스도”를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락은 아름다운 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려면 “사랑”이란 단어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 넣고 읽어 보십시오. 사랑에 대한 최상의 본은 죄 없으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반역하고 대항하는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겨를 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한 사도바울의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쁨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고후 12 : 15).

## ② 희락(기쁨)

이것은 경솔하고 들뜬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그분의 다루심에 대하여 깊이 자라잡은 만족감을 가리킵니다(빌 4 : 4).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서는 슬픔의 사람(the Man of Sorrows, 우리 말 성경에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로 나와 있음 — 역자 주) 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참된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현재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기쁨에 관해서는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 : 34).

그 다음에 장래의 기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



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 : 2).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니”(행 16 : 25)

### ③ 화평(평안, 평강, 평화)

이것은 의뢰하는 영혼으로 하여금 환경 위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보게 만드는 마음의 평정과 침착을 가리킵니다(빌 4 : 7).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8 : 22,25에서 평안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 주십니다. 배는 폭풍우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실상 사색(死色)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서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강, 곧 그분이 인자(人子)로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누리셨던 평강을 우리도 누리야 합니다(골 3 : 15). 그분의 평강은 여호와를 견고히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으며(사 26 : 3),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 평강을 계발하려고 애쓰십니다. 여기에 나온 평강은 또 믿는 자와 다른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 존재하는, 화목한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우리 말 표현으로는 “화평”이 이에 해당함 — 역자 주).

#### ④ 오래 참음

이것은 인내, 곧 고난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으며, 괴로움을 당하여도 화를 내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엡 4 : 2).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분의 인내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 구약시대 성도인 욥의 인내는 이 덕(德)의 전형적인 본입니다(약 5 : 11).

#### ⑤ 자비(Gentleness)

남을 잘 생각해 주는 이 성품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여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분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을 그분의 제자들이 보고 금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 : 14). 사람들은 그분에게 언제나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분은 사람들의 접근을 언제나 받아 주셨으며, 사람들의 애원을 잘 받아 들이셨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으며, 상냥하고 예의바른 분이셨습니다. 세상에는 이 자비가 종종 연약의 표시로 간주될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위대함의 표시입니다(시 18 : 35, 엡 4 : 32).

#### ⑥ 양 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양선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 줍니다(눅 10 : 30~35).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그것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입니다. 그것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 7 믿 음

이 믿음(우리 말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나와 있음)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 **하나님을 믿는 믿음** — 이것은 평온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사랑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막 11 : 22).

♥ **다른 사람을 믿는 믿음** — 이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쉽게 믿어 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평은 받아 들이기를 주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충실 또는 신실** — 이것은 말과 정직성과 신뢰도에 있어서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딤후 2 : 10).

### 8 은 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그분은 은유에 관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본을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습니다(요 13 : 1~17). 그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치를 구하거나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딤후전 6 : 11).

### 9 절 제

이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자기 억제)을 의미합니다. 이

것은 특히 우리의 정열과 욕구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정욕을 억제하고, 해도 죄가 안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적당히 함으로써 고결하고 자제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단된 삶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에 그와 같이 합당치 않은 것들을 자기 의지로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악이라도 우리를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영국 반스테인플의 고(故) 로버트 C 차프만(Robert C. Chapman)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J. N. 다비(Darby)는 차프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윌리엄 아르노트(William Arnot)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집니다. “그의 설교는 좋았고, 그의 글은 더욱 좋습니다만 그의 삶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상한 열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갈 4 : 19, 골 1 : 27).

## 제 7 과

# 기독교 서적들

**여**러분은 자신의 생애에 영향을 끼친 문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책 중의 책인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학교의 교과서와 기타 다른 책들, 잡지와 신문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견해나 지식, 일반적인 배경 등 모든 것은 읽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읽는 책들, 그리고 자기에게 영향을 줄 책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자의 일반적인 건강과 활력은 그가 먹는 초장(草場)의 종류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이 첫째간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 대신, 영감을 받아 기록되지 않은 다른 책을 읽으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놀라운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온 다른 책들의 풍성한 유산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많은 책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킵니다. 여러분이 이 책들을 주의깊게 읽었는데도 예전과 같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읽는 것에 착념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주의해야 합니다(딤후 4 : 13). 그들은 자신의 연수(年數)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재 만화나 싸구려 소설, 쓰레기 같이 저속한 잡지 등을 읽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익한 문서를 읽겠다고 굳게 결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소설이라도 읽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들은 읽어야 할 책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필독(必讀)해야 하는 책들 중의 일부입니다.(물론 이 목록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목록은 좋은 독서 생활을 하게 하려고 시동을 걸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 1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 by John Bunyan)

성경에 버금가는 이 책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변함없이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 셀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책은 장망성(將亡城)으로부터 천성(天城)으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旅程)을 그리고 있는데 독자들은 흥미를 자아내는 이 책에 매혹되어 감에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감정과 경험들이 순례자의 것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② 순교자들의 책(Foxe's Book of Martyrs)**

이 책에는 존 허스(John Huss)라든지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같은,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증거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가장 잔인스런 고문마저 이 사람들의 믿음과 증거를 철회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책을 필히 읽어야 합니다.

**③ 허드슨 테일러의 초기 생애(Hudson Taylor in Early Years by Dr. and Mrs. Howand Taylor) ·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 내륙 선교(Hudson Taylor and the China Inland mission by Dr. and Mrs. Howard Taylor)**

선교사의 전기(傳記) 분야에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훌륭한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중국의 오지(奧地)를 달라고 요구했던 한 사람의 기쁨과 역경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 줄 것입니다.

**④ 크리켓 선수였으나 신앙의 선구자가 된 C. T. 스테트(C. T. Studd, Cricketer and Pioneer by Norman P. Grubb)**

이것은 또 다른 영적 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의 크리켓 챔피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대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와 사치를 떠났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감동시켜 더 큰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⑤ 브리스틀의 조오지 뮐러(George Muller of Bristol by A. T. Pierson)**

뮐러는 영국 브리스틀에서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그는 자신

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알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수 백만 달러를 받아 고아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먹일 식사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식탁에서 머리를 숙이고 식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친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양식을 고아원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책에는 기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신 이야기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⑥ 모세오경 강해(Notes on the Pentateuch by C. H. Mackintosh) 여러분은 D. L. 무디(Dwight L. Moody)가 적극 권장하는 이 책으로부터 귀한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H. A. 아이언사이드는 C. H. 매킨토쉬의 글이 성경 다음으로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책들 외에도 우리는 다음의 저자들의 글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경(Sir Robert Anderson)

J. G. 벨렛(J. G. Bellet)

F. W. 보어햄(F. W. Boreham)

L. S. 퀘이퍼(L. S. Chafer)

J. N. 다비(J. N. Darby)

A. C. 개벨린(A. C. Gaebelien)

F. W. 그랜트(F. W. G)

H. A. 아이언사이드(H. A. Inonside)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  
 알렉산더 맥라렌(Alexander maclaren)  
 F. B. 마이어(F. B. Meyer)  
 G. 캠벨 모오건(G. Campbell Morgan)  
 E. A. T. 피어슨(A. T. Pierson)  
 사무엘 리도우트(Samuel Ridout)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not Sir W. S.))  
 C. H. 스펀전(C. H. Spurgeon)  
 W. 그리피스 토마스(W. Griffith Thomas).  
 존 리치(John Ritchie)

기독교 문서를 읽는 일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째로, 어떤 책을 저자로나 또는 출판사로만 판단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책을 각각 판단해야 하며, 특히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② 기독교 소설의 시비(是非)에 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독교 소설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지한 독자들은 “선(善)은 최선(最善)의 적이다”(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책들은 이것들보다 더 훌륭한 책들을 읽는 데에 사용해야 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③ 어떤 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것을 언제 읽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때 우리는 어떤 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그것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 그 책에 너무 몰두되므로 손을 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 동안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연필과 공책을 항상 옆에 준비해 두었다가 훌륭한 사상이나 도전적인 말, 또는 인용할 만한 표현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용하는 책의 명칭과 저자, 페이지 숫자들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해 둔 자료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재산이 되는데 이것은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참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제 8 과

# 선 교

**열**심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선교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마 28 : 18~20). 그들은 선구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기쁜 소식을 결코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든 인류에게 빛을 진 자라는 것을 인식합니다(롬 1 : 14).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의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선교 활동에 대하여 아는 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며, 기꺼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마땅히 선교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만듦려면 적어도 7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7단계 중에서 처음 자리를 차지하는 게 합당합니다.

세계복음화운동에 있어서 기도의 진가와 중요성을 온전히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활기 없고 흥미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일반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주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내 흥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만나거나 전해 듣는 선교사들의 이름과 기도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만날 적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 만남을 주선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이름, 주소, 그리고 대개는 기도 지원을 호소하는 짧막한 내용이 담긴 기도 카드를 제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는 자기 방의 벽을 이와 같은 사진들로 꼭 메우고 각 사람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는 종종 전 세계선교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지속시키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선교지역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칼라 핀(colored pins)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지성적이면서도 생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기도에 실증되거나 낙담될 때에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

리가 기도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에스키모 사람들을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 빛을 찾았으며,  
기쁜소식이 이교도의 어두운 밤을 추방했으며,  
그처럼 오랫동안 지연되던 십자가의 멧세지가  
마침내 그들에게 생명을 갖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Charles B. Bowser)

② 우리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고국전선(故國戰線, home front)에서 오는 소식을 환영할 것이며, 자신의 사역에 관한 질문에 기쁘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더욱 지성적으로(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우리는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현금** — 우리는 이것을 우편환이나 국제 어음의 형태로 바꿔 선교사에게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상황이 변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돈을 부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선교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 현금을 교회적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닐지는 몰라도 효과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기금을 외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선교단체가 정직하고 효율적인지, 또 지정된 현금이 전부 선교사에게로 가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들을 부인하는 선교단체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현대주의적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기보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 **중고 의류** — 이것은 거의 언제나 환영을 받습니다. 자국민(自國人)에게 주어지는 의류가, 그 사람을 우상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첫 단계로 귀중히 쓰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의류를 보내기 전에 먼저 그 의류가 깨끗하게 세탁되고 잘 보수(補修)되었는지, 그리고 선교사가 있는 나라의 기후에 적당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적과 식량 등** — 고국으로부터 오는 조그만 선물 꾸러미는 멀리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격려와 위로를 안겨다줍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의 상황을 더욱 알아감에 따라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에게나 혹은 선교사를 잘 아는 사람에게, 소포 꾸러미 위에 주소를 기재 하고 그것을 보내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소포 꾸러미 위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면 선교사가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희생적으로 기여하기를 참으로 원하기

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길 것입니다.

어떤 가정주부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녀는 매년 여름마다 화채원(花卉園)에서 일을 하여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외국 선교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리즈의 로버트 아딩턴(Robert Arthington)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보낼 돈을 절약하기 위해 단칸 방에서 손수 식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는 2백 8십만 달라나 되는 거금을, 25년 안에 선교 사업에 모두 쓰여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현금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종이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을 당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마루 바닥을 나의 침대로 삼고, 상자 하나를 의자로, 다른 상자 하나를 식탁으로 삼고 싶다.”

**4** 우리는 선교사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들은 선교사역의 문제와 시련, 낙담 등을 우리에게 각성시킬 것이며, 신실한 군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군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5** 우리는 선교잡지들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잡지들을 통해 우리는 진리가 허구보다 훨씬 기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적인 구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들, 복음의 영광스러운 승리 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며,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되도록 우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6**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친

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접대와 교통수단은 어느 곳에서나 필요합니다. 그들의 방문을 받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십자가를 신실하게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명예롭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히 13 : 2).

[7] 마지막으로, 만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탄원합니다. 영혼들의 피로 물든 옷자락을 가지고 영원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주님과 선생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시기를…”(발췌문).



## 제 9 과

# 금전에 대한 청지기 직분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업무를 돌보고 처리하는 관리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시간과 재능, 재산 등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벧전 4:10).

이 과에서 우리는 금전에 관한 청지기 직분을 특별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에 대한 근본 원칙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찬송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신 분을 위해 그것을 소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마음, 저의 힘, 저의 생명, 저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 : 15).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엄청난 재물을 축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간 선교사 윌리엄 번즈(William Burns)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현세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와 하늘 사이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과 슬픔을 적게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종,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정기적으로 살살이 조사하곤 했습니다.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It is required in stewards that a man be found faithful, 고전 4 : 2, 우리 말 성경에는 “맡은 자들에게”로 나와 있음 — 역자 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선생님(주님)의 소유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① 언제 드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기적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6 : 2에서 우리는 드리는 때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利)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

일 첫날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 ② 얼마나 드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게 더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질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실제적인 액수를 주님과 자기 사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지침을 참조한다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利)를 주시는대로(번창케 하시는대로) 드려야 한다(고전 16 : 2).**

♥ **풍성히 드려야 한다(고후 9 : 6).**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십일조, 곧 수입의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놓으셨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레 27 : 30~32). 기독교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적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희생적으로 드려야 한다(고후 8 : 1~5).** 그리스도자들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요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고후 8 : 9). 어떤 가족은 주님께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하여 탈지 우유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어떤 가족은 값이 더 싼 고기를 사고 남은 돈을 저축해 두었다가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값이 더 싼 의복을 구입하고, 꼭 필요한 것만을 구입함으로써 이상의 가족들과 같

이 할 수 있습니다.

♥ **비례적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자기 수입에 비례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주님의 종은 자기 수입의 절반을 주님의 일에 드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이름 있는 사업가는 자기 수입의 90%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 ③ 어떤 심령으로 드릴 것인가?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청지기 직분이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7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드리지 말고 자기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려야 한다.

♥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

♥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즐거”에 해당하는 원어는 문자적으로 “들떠서 떠드는”(hilarious)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 외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한다(마 6 :

2~4, 눅 18 : 12).

♥ 일부를 감추어 놓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드러야 한다(행 5 : 1~4).

#### ④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모든 헌금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나 주님의 일꾼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헌금에 관심있는 그리스도인이자라면 합당한 헌금 대상을 찾는 일에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종종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대상들에게 헌금해야 할 책임을 느낄 것입니다.

♥ **지역교회** — 지역교회의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몫을 기꺼이 떠맡아야 합니다.

♥ **가난한자들**(갈 2 : 10).

♥ **과부들**(딤후 5 : 3~4).

♥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딤후 5 : 17~18).

♥ **교리적으로 건전하며, 하나님의 원칙들과 일치하는 성서적인 활동들.**

주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 : 35).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한 결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습니다.

♥ **물질적인 축복**(잠 3 : 9~10). — 이것이 꼭 엄청난 재원(財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에게 금전적인 재물을 의탁하시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빌 4 : 19).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은 자발적인 희생 뒤에 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빌 4 : 18).

♥ **영적인 성장**(눅 16 : 11). — 만일 우리가 불의한 재물(물질적인 소유)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재물(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풍부)을 맡기실 것입니다.

♥ **행복**(말 3 : 10). — “복”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사람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의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 **하늘에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눅 16 : 9 참조). — 우리의 헌금을 통해 구원을 받은 영혼들(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들)은 우리가 없어질(죽을) 때에, 또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입니다.

♥ **하늘의 보화**(눅 18 : 22). — 주님의 이름으로 준 냉수

한 그릇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막 9:41).

어떤 사람은 드리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놀람으로 묘사했습니다.

♥ 자기가 주님의 일에 드릴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보고 놀라게 된다.

♥ 자신의 영적 생활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놀라게 된다.

♥ 자기가 지불해야 할(법적인) 채무를 지불하기가 쉬워지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 자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점점 증가해 가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 청지기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 자기가 세운 현금 계획을 좀 더 일찍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게 된다.

## 제 10 과

# 사랑과 구애(求愛)

**우**리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중의 한 가지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입니다(잠 30 : 19).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본능들 때문에 모든 세대의 젊은이들은 이상스럽게도 이성(異性)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아는 사이가 친구 사이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 — 구애 — 결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열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지극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남녀간의 우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기도와 더불어 신중한 가운데에 형성되면 두 사람은 일생 동안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삶은 파괴되고, 간증은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우정을(교제를)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첫 번째 기준은 “이 우정(교제)을 성경이 허락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만일 불신자라면 그 문제에 대하여는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후 6 :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또 자기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결혼하고 나면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둘다 정신나간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잡혼(雜婚)을 금하십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의 입에서 튀어 나온 말은, “그 여자가 저를 기쁘게 하오니”였습니다(삿 14 : 3, for she pleaseth me well, 우리 말 성경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로 나와 있음 — 역자 주). 그가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가?”

② 두 번째 시험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참으로 원하는가?”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 질문은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잠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한 청년이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데이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자기 일생의 반려자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녀와 데이트를 가지면서 그냥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교제를 나눠감에 따라 그들의 애정은 점점 깊어갑니다. 얼마 안되어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서로 약속을 하

게 됩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③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자문(自問)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서로 같은가?” 쌍방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신적·영적 조화는 성공적인 결혼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신체적인 매력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 흔하면서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무시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인도하셨거나 승인하신 사실이 분명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은 객관적이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로 쉽게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하나님이 배우자로 선택하신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인을 얻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모두 확인되고 나면 서로 약혼을 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비록 약혼이 결혼만큼 구속력이 있지는 않을지라도 엄숙한 약속이므로 경솔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애정을 회롱하는 것과 일반이며, 이것은 종종 슬픔과 비극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신중치 못한 것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간증을 보여 주게 됩니다.

교제를 나누고 데이트를 할 때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황금률을 지켜야 합니다.

#### ① 세상을 흥내내지 마십시오.

일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저속화되었는지 서로 애무를 하고, 애정을 공공연하게 과시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백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위험입니다(딤후 2:22, 벰전 2:11).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불을 품에 품으면 데기 마련입니다(잠언 6:27).

사실, 믿는 자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합니다(살전 15:22). 이것은 믿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틈도 허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단 둘이만 간다든지, 지나치게 늦은 시각까지 함께 있는 것은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 ②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십이여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곳에서도 젊은이들은 정욕과 정열을 자유롭게 즐기라는 충고를 공공연하게 받고 있으며, 정숙한 삶은 암전을 빼는, 금욕적인 것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전의 좋지 않은 관계를 포함하여 갖가지

종류의 부도덕은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육체기능의 사용이라고 너그럽게 보이줍니다(벧전 4:2~5). 하지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사단의 거짓된 선전에 희롱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엡 5:3, 5). 그들은 자기 몸이 성령님의 전(殿)임을 항상 기억하면서(고전 6:19)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후 5:22).

### ③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눈다면 그들의 생각과 가치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후 6:17~18).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험은 다른 사람들을 죄악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기쁨을 얻는 악한 사람들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롬 1:32). 세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곧 온갖 간계와 술책을 이용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악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꾀는 남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특히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잠언서는 모든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잠언서에서 여러분은 “이방 계집”에 대한 경고를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잠 2:16~19, 5:3~14, 20, 21, 6:24~28, 23:27~28). 뿐만아니라 여러분은 또 경건하고, 건전하며, 실제적인 충고들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대한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문란한 도덕에 오염되지 않을 것이며, 악한 자의 화전(火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주님께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우정이 그분의 뜻대로 연마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 84 : 11).

## 제 11 과

# 결혼과 가정

**결**혼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기독교의 의식(儀式)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제도나 관습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는 결혼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엡 5 : 23, 24, 32).

여기에서 결혼이란 주제를 철저히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 중에서 몇 가지만을 대강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첫째로, 결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창 2 : 24). 비록 사단이 결혼을 진창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써 오긴 했을지라도 성경은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것이고(딤후 5 : 14), 또한 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히 13 : 4). 성경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참으로 준엄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일

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 : 18).

③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예외들은 마태복음 19 : 12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지낼 수 있으며, 이것을 케이블(cable)과 프렌치(French)는 다음과 같이 잘 지적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로맨스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독신생활로 부르신 경우에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독신생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치루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④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의 동반관계를 마련해 주시고 피차간에 돕도록 하기 위하여(창 2 : 18).

♥ 자녀들의 출산을 통해 인류를 번성케 하기 위하여(창 1 : 28, 9 : 1). 결혼의 결합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새로운 생명을 세상으로 내어놓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동역자가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箭筒)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 : 3~5).

♥ 음행과 부절제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고전 7 : 2, 9). 이 주제는 고린도전서 7장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첨언(添言)하면, 성경에서 결혼에 관하여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곳은 고린도전서 7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실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장(章)을 더 공부해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5]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에 관한, 근본적이면서도 중대한 조건은 “주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고전 7 : 39). 이 “주 안에서만”이란 표현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결혼이 주님의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주님 되심)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배우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6] 약혼을 너무 성급히 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둘러 결혼하면 한가할 때 후회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닐지라도 사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7 결혼이란 두 사람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결코 무효화 될 수 없는 계약입니다(마 19 : 6, 롬 7 : 2~13, 고전 7 : 39). 한 배우자가 다른 한쪽에게 성실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을 뿐(마 5 : 32, 19 : 9), 이혼은 하나님 의 말씀에 위반됩니다.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결혼과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에 관하여 많은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의문들은 너무나 심오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문들은 경시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이것에 관한 정보를 세상적인 자료들로부터 얻으라고 너무나 자주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왜곡되고 불순한 것이 많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추천합니다.

### 1 자기 부모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은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를 망서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신 11 : 19, 사 38 : 19).

### 2 성경

여기에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 3 신령한(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경건한 장로들에게 다 털어놓고  
조언과 교훈을 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 ④ 평판이 좋은 의사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면 더욱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의사  
의, 사실에 입각한 정보, 곧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일에 관하여  
사실에 입각한 정보는 받아들이기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충고  
는 전혀 불만족스러운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 ⑤ 기독교 문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 권위자들에 의해 쓰여진 훌륭한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 안에 나와 있는 정보  
들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유익합니다.

가정에 관해서는 성경에 꽤 자세한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  
니다. 성경에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관한 의무들이 신중하  
게 제시되어 있는데 다음에 든 예들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엡  
5 : 25, 골 3 : 19), 귀히 여기며(벧전 3 : 7), 자기 몸처럼 여  
기며(창 2 : 23, 마 19 : 5), 성실하며(말 2 : 14~15). 위로  
해야 한다(삼상 1 : 8).

♥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 자기 남편을 사랑하며(딤후  
2 : 4), 존경하며(엡 5 : 23), 성실하며(고전 7 : 3~5, 10),  
복종하며(엡 5 : 22, 24), 순종해야 한다(딤후 2 : 5).

♥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 —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딤후 2 : 4),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마 19 : 13~14), 하나님을 위해 훈련하며(잠 22 : 6, 엡 6 : 4), 부양하며(고후 12 : 14, 딤후 5 : 8), 다스리고 바로잡으며(잠 13 : 24, 19 : 18, 23 : 13, 29 : 17, 히 12 : 7),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엡 6 : 4, 골 3 : 21).

♥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 — 부모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잠 1 : 8~9), 공경하며(출 20 : 12, 히 12 : 9), 경외하며 곧, 존경하며(레 19 : 3), 순종하며(잠 6 : 20, 엡 6 : 1), 노년기에나,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부양해야 한다(딤후 5 : 4).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정은 가족제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가정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토론하며, 온 가족이 기도 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실히 실천하는 가정은 주님의 축복을 실제로 보장받습니다.

## 제 12 과

# 전임 사역으로의 부르심

어떤 의미에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일상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 사역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행 13:2).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선구자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선교사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그와 같은 섬김에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육이 어떤 사람을 예수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학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성직수임식(聖職受任式)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재능과 특권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미혹입니다. 그 이유는,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권능의 성직수임식”을 떠나서는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의식(儀式)이 그저 “텅 빈 머리 위에 텅 빈 손을 얹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스필전).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명백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리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삼상 3:9). 봉헌(奉獻, 헌신)이라는 것은 단 한 번뿐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경험입니다. 설혹 하나님이 여러분을 암흑대륙인 아프리카로 부르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그리로 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에게 실제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상주실 것입니다(왕상 8:18).

둘째로,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인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외국에서 그분을 위해 수고하기 전에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막 5 : 19). 만일 여러분이 자기 가정에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면 바다를 건너 외국 땅으로 가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차라리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행 1 : 8).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하한 종류의 행동이건 간에 성급한 행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를 받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분기(奮起)시키는 선교사의 호소를 듣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야가 한 것처럼 먼저 제단 위에 물을 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왕상 18 : 33). 이 말은 그들이 회의에 빠질 가능성을 제거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전임 사역에 대한) 소원과 관심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히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

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자기는 복음전도자로서 뛰어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전임사역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사람은 장로 형제들의 조언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과 연관지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무소속의 일꾼들을 지지(支持)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징계를 수반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한 지역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이 말은 곧, 각 사람을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잘못했을 경우에 지역교회의 징계(치리)를 받아야 한다는 뜻임 —역자 주).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결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부르심을 묘사하기를,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이것은 “이리 오라”든지, “나를 따라오라”하는 신호임 —역자 주).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신비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확신과 감동을 형성하시면 가만히 있는 것은 노골적인 불순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걸음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웃어 넘기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고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고전 9:16).

“저는 제 자신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곧, 사역으로 부르시는, 모든 참된 부르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발의(發議)를 감지하는 마음, 곧 자기가 위임을 받았다는 신비한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뜻임 — 역자 주).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오직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과 도구로서,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천직(소명)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J. H. Jowett).

이상과 같은 부르심에 미치지 못하는 부르심은 충분치 못하다 하겠습니까.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의 필요, 그 자체가 곧 부르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설교자의 열화(烈火)같은 호소 자체가 부르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만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론 순종입니다.

“저는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저의 황금은 빛을 잃어갔고,

저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발췌문)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디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안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길을 형제들로부터 돌리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독초입니다(히 12 : 15).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 : 22).

②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질 목적으로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나사렛은 조그만 장소였으며, 갈릴리도 마찬가지였읍니다.” 때때로 우리는 열매가 적은 것을 보고 “더 큰” 사역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조용하게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③ 여러분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눅 17 : 10). 우리의 의무는 늘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력의 결과들을 듣게 될, 가장 좋으면서도 안전한 장소는 하늘이 될 것입니다”(고전 3 : 8 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종들의 간증은 다음과 같은 J. H. 조우 (Jowett)의 말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르심(소명)을 사랑하며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과 충성의 문제에 대해 다른 경쟁자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

직 한 가지 열정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주님과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은 저를 몰두하게 만들었고, 힘들면서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 부 록

# 정욕의 문제

### 1 정욕의 문제

격렬하게 타올라 저항할 수 없는 정욕! 이것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느 때나 문제가 되어 왔어요.”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현재에 와서는 대단히 심각해졌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갖가지의 대중 매체를 통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노골적인 섹스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T.V와 라디오에도 있으며, 잡지와 신문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판 위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영화에서도 생생한 색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낌없이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멋대로 하게 내버려둡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섹스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정욕을 불태우는 모습들은 거의 놀랄 일이 못됩니다.

마귀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교묘한 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말씀드리기 거북한 일이지만 그는 대단히 성공하고 있

입니다.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쏘아 쓰러뜨리는 영역은 성적인 부도덕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강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희생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빌리 그래햄은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섹스에 사로잡힌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시대는 혼전 성경험과 혼외 동거와 극악한 간음과 동성 연애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의 생활 방식에 타협하고, 생각만 해도 오싹한 환경에 굴복할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 ②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

오늘날 성적인 영역에서 아무 파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념 트로피적 존재들입니다. 요컨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파선하는 것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며, 반드시 어떤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예로 들면, 여러 가지 부도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혼전 섹스는 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음도 죄입니다. 동성 연애도 죄입니다.

어떤 현대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행위들을 일종의 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이 죄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이론가들은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의 한 형태이며 본질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 하지

만, 성경은 어느 사회에서를 막론하고 그것들이 죄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유명하다는 성직자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한 그것들은 허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이 정욕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히 죄로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방심 상태에 있는 셈입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였음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확증합니다(롬 1 : 32). 바울도 고린도전서 6 : 9에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은 성(Sex)은 반드시 결혼한 부부간에만 행사되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성취감을 주지만, 혼외 성관계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또 자유분방한 성도덕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육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 : 18). 이 죄는 인간 신체의 모든 조직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정신적, 감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그 예로서 죄의식과 후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범죄한 사람 전체가 보응을 받습니다.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 : 27). 물론 그 사람의 간증도 박살이 나고 그의 입술도 봉해지게 됩니다.

혼전 성관계는 흔히 장래의 결혼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호 신뢰와 존경이 결(缺)하게 된 상태에서 어떤 일에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한 쪽은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을 다른쪽의 면전에 던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은 시작되고 그 결혼은 끝장이 납니다.

그와 같은 죄들은 종종 지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듣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는 줄은 내 일생 동안 정말 모르고 지내왔어.” 그러나 그것은 오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말에 불과합니다.

죄를 예상할 때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회고할 때는 그것이 끔찍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육은 종종 중국에 가서는 증오로 변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말을 범한 후 생겨난 나중의 증오는 그녀에 대한 처음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삼하 13 : 15).

우리는 우리들 중 누구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하고 부패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더러운 죄를 언제든지 지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유혹에 대항하게 하시고 정육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힘없는 앞잡이로 만들 수 있는 죄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 ③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것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 중의 하나는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 마음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서 인간의 눈이 따라올 수 없는 죄의 어두운 뒷골목을 방황합니다. 또 하나의 “나”가 상상적인 쾌락의 경험을 가짐에 따라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환상 속에서 점점 몰입되어 갑니다. 아직 아무도 그 일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오래 생각하면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을 직접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 : 14~15).

생각을 심으면 행위를 거두고  
행위를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생각은 행위가 솟아나는 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유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포격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죄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신적인 음모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그것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주님 앞에서 그것을 정죄한 후 완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 그것은 악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거래를 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더러운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어 우리 마음을 비게 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음의 하나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허용해서는 안될 산만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몰아낸 후 즉시 주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



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텔레비전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 한다면 T.V를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는 일을 엄히 통제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T.V에는 유익한 것들이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는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더럽고 추한 농담, 저속한 말, 세상적인 태도와 사고방식, 육체의 관능적인 비틀림, 정욕을 자극하는 노래의 가사...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현대의 T.V는 추잡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것을 보면서도 더럽혀지지 않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욕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T.V에 도끼를 휘두름으로써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T.V에 세뇌되도록 내버려두는 한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창조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와 책, 잡지같은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을 쓰레기로 채워 놓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단련시킬려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 외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면 그 순간 즉시 자백하고 자신이 이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잠 28 : 13). 이러한 삶은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보내는 방심하고 흐트러진 순간에도 우리의 나머

지 인생을 망치게 될지도 모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시 119 : 9, 11).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죄의 지뢰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히 4 : 16).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주의 이름을 읊되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기회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롬 12 : 1~2).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롬 6 : 16) 그것들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일상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히 10 : 25). 양은 목자의 감시의 눈 아래에서 다른 양 떼와 함께 풀을 뜯고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러나 양이 저 혼자 떠돌아다닐 때 이리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만찬식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바빠야 합니다(전 9 : 10, 고전 15 : 58).

성적 욕구는 인간의 육체에 있어서 가장 강한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성적 욕구의 배출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충동의 에너지를 그 원시적인 목적으로부터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고상한 차원의 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쉬임없이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에너지를 다른 배출구를 통해 내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승화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물건들이나 쓸데 없는 친분 관계를 맺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유다는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유 23절).

우리는 악한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단호한 행동이라도 취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또한 만일 네 오른 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마 5:29~30). 요셉도 단호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을 피해 안전한 거리만큼 멀리 피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걸음을 잃었으나 그 대신 나중에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타고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마약이나 술 따위를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일도 그와 같은 물질의 영향아래 있는 동안에는 대담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주 동안에도 수천번씩 “안돼”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이란 곧 분리 또는 다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하기를 원하다면 속인들과 다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혹에 대해 “안돼”라고 말할수록 유혹에 저항하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하나의 승리는 또 다른 승리를 낳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수록 다음 번에는 그것에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 [4]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욕으로 격렬하게 불타올라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외엔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 : 10). 베드로는 차신이 몰속으로 빠져져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 : 30).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엔 언제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조언은 참 좋지만 제게는 그것이 너무 늦은 것같군요. 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미 망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달리 조언해 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 : 9).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 : 13). 하나님은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매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욥 2 : 25). 그분은 다투을 용서하셨으며, 죄와 수치의 거름 더미에서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삼손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음의 우등생 명부에다 기록하셨습니다(히 11 : 32). 그분은 당신도 역시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혹 이 진리를 죄를 짓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 조금 재미를 보아라. 그 다음에 자백하면 그만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또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징계를 내리시고 나서 그렇게 하실 것이며, 혹 그 징계가 엄할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당신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더러운 성적인 죄와 패역의 삶을 살아온 비그리스도인은 어찌 될까요? 그에게도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에게도 역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며,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과거를 자신의 망각의 바다 속에 깊이 묻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과 동시에 잊어 버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은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일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 경관관 그리스도인들 위원회

민중의 근반 진리들  
존 리치/28만/원 1,800원

주 예수님의 재림  
존 리치/28만/원 1,800원

대문에서 가나안까지  
존 리치/180만/원 2,800원

골자의 성막  
존 리치/180만/원 2,800원

여호와의 7월기  
존 리치/96만/원 1,200원

그리스도인의 모방 - 교회  
J. R. 리틀/프린스/296만/원 2,0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 I. 스코필드/892만/원 1,400원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윌리엄 맥도날드/892만/원 1,2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칼 노트와, 윌리엄 맥도날드/892만/원 1,200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존 리치/172만/원 1,500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데이비드 톨버/892만/원 1,200원

신앙에 갈망하신 교인들의 비밀들  
T. 미너스트 윌슨/142만/원 2,800원

비율과의 황폐  
H. A. 미아르시/142만/원 1,200원

모임에 대한 성경의 원리  
알프레드 P. 킴스/892만/원 1,200원

간추린 교회사  
A. E. 호우즈/892만/원 1,200원

함금의 집 - 성막(원세 시진 31편)  
J. 로우/892만/원 3,000원

성경은 책장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M. 머란스/892만/원 5,000원

성령님의 역사  
에이브트 테일러/892만/원 1,500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 E. 울루우/122만/원 1,800원

순례하는 교회(교회사)  
E. H. 브라우워드/480만/원 8,000원

성교자와 그의 성교  
알프레드 P. 킴스/484만/원 8,500원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 예배  
알프레드 P. 킴스/240만/원 4,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영로직  
알렉산더 스토크라우/294만/원 8,200원

교회는 성난을 통과할 것인가?  
E. W. 로저스/122만/원 1,700원

구역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니안 J. 스톨/220만/원 3,400원

제사장 지역  
C. W. 울라먼/220만/원 3,500원

영기리와 무궤이  
알버트/240만/원 3,600원

성경해석의 일차 2가지  
에드워드 허웰/360만/원 8,500원

핵심 성교 노트  
윌리엄 로저스/436만/원 9,000원

### 경관관 그리스도인들 위원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윌리엄 맥도날드/112만/원 2,000원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올스 C. 리오/122만/원 4,500원

주님의 만찬  
알프레드 P. 킴스/258만/원 4,400원

대일의 묵상  
윌리엄 맥도날드/448만/원 8,500원

나그네의 소망  
이훈영/190만/원 4,800원

성령충만한 가정  
켄달루/144만/원 2,800원

같은과 가정  
A. J. 해리스/180만/원 2,200원

델리아 - 엘리시  
C. E. 테일 - V. D. 트롬폴/144만/원 2,800원

구원의 열매성과 난해구할 핵심  
박준형/892만/원 1,700원

진리의 열매 민족의 영  
박준형/892만/원 1,700원

영원을 계신하는 삶  
윌리엄 맥도날드/122만/원 2,500원

우리가 진정한 것은 서로 무엇인가?  
N. M. 프래이더 - 송가섭/462만/원 900원

베드론의 시역과 증거  
R. E. 할로우/892만/원 1,200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윌리엄 로저스/122만/원 2,500원

세계성교 - 전면전  
E. L. 웨스데/892만/원 3,500원

뜻의 회와 칼로리  
올스 스토크라우/122만/원 3,800원

###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 발행일 : 1988년 7월 15일 1판1쇄 발행  
1996년 6월 30일 1판4쇄 발행
-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 옮긴이 : 김병희
- 발행인 : 이치일(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No.4-41)
-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 전 화 : (0344) 914-2732
- 팩 스 : (0344) 917-4520

---

· 정 가 : 1,400원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 89-7531-754-2 03230.